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hopia.com/mem/na nmaum

법공양 페이지

“고정됨 없이 돌아가기에 묘법”

경전을 대하는 바른 자세

문 불교에는 유달리 경전이 많고 해설서나 법어집, 강의록 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려보기 어렵습니다. 마음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전이나 법어집 등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자세로 대해야 하고 어느만큼 참고해야 하는지요? (오승운)

답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것을 경전으로 편집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마음으로 읽어 보는 것도 좋지요.

문자를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복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다 보면 문득문득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마음을 활용하는 방법

문 법문을 들다보면 가끔 한생각 일문 오키는 마음의 작용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또는 마음의 광대무변한 작용 즉 묘법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주위에선 무슨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

“마음은 체가 없어 아비도 되고 아이도 되고 소도 말도 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공부지요”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오장육부 속에도 천차만별로 모습들이 다르고 행동 다르고 모든 게 다르듯이, 사람마다 마음 내는게 천차만별로 제 그릇따라 다른 데 누가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경전을 풀이해 놓은 책 중에는 기복의 관점에서 써 놓은 게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마음을 개발하고 지혜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아쉬운 대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보고 들지 못한 것은 이름을 몰라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먹여보지 못한 것은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참고적으로, 길잡이로써 경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복으로 풀어놓은 것은 이치에도 합당치 않고 그 자체로는 죽은 글이니 길잡이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어떤 돌부처가 말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옮겨놓고 나니까 꿈에 '나는 가니 싫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있던 자리로 옮겨 놨는데 그와같이 틀에도 생명이 없는게 없는데 하물며 진리를 바로 밝혀놓은 책이었습니까? 일체제발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으니 마음공부

를 낸다는 말도 합니다. 짐작하기에 그런 게 다 마음의 활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게 그대로 참선이요 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과 마음의 활용은 어떻게 다른지요?

마음을 낸다, 활용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경지, 또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희선>

답 활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느 것 하나를 세우는데 아니고 저 그릇으로 말하면 완전하게 빈 그릇, 그러니까 언어조차 세울 게 없는 차원입니다. 너다, 나다를 세울 게 없는 자리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했고 발견하면 그냥 그대로 묘법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내게 고정관념이 없고 일체가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무슨 활용이 다 주인공이다를 떠나서 그냥 한생각 일어날 때에 전체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대로 묘법이 활용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칫 활용법이 따로 있거나 세심스러운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견성성불할 수 있음을 믿고 일만 그릇을 비웠느냐에 따라 바로 용신을 하는 것이지 될 해달라 하는게 아니지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맛을 볼 양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겠지만 그게 활용법인 줄 알면 그건 가르치는 사람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도 함정에 빠지고 가르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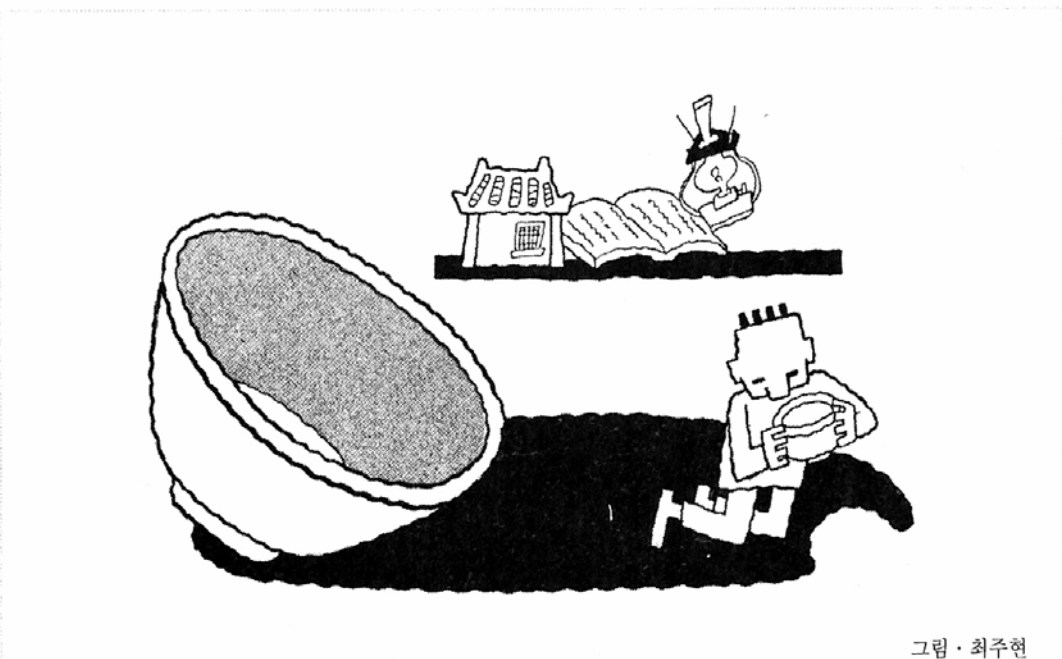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무엇하나 세워서 ‘나’ 라고 할 것 없이 그릇이 비어 둘 아니게 응하는게 활용”

사람도 함정에 빠뜨리는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맛을 보고 킁킁이 더워지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착을 두면 그냥 멍덕 잘라 버립니다. 들고가던 등불을 훑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이고 전에 배웠는데 캄캄해졌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놓아라 이거지요.

활용법이란 말부터가 그렇지, 전부 공해서 돌아가는데 무엇을 세워서 활용한다고 말할 할 것이나 이겁니다. 제가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무엇 하나 세워서 나라고 할 것이 없이 그릇이 빈 채로 돌아가면 그대로 활용이고 그대로 참선이지요. 활용이다 참선이다 하는 언어도 불필요한요.

사람들은 신묘한 작용이 또 있다고 생

각하는 모양인데 본래 숨 들이쉬고 내쉬는게 활용이고 눈 깜짝거리는 것도 활용이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천도 좀 시켜주시시오'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도 들음도 없기에 듣는 순간 곧바로 내가 지장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천도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조차 불필요하지요. 그 순간에, 그러니 그냥 둘 아니게 응했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니 그냥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니 그냥 아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이라고 한다면 그릇을 비운 자리에선 벌써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몰록 놓아라, 왜 못 믿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러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참나인데 그런 생각할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심만 팔천리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자리가 없어요. 한생각 낸다고 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는 자리에서, 일체가 공해서 돌아가는 줄을 믿고 둘 아니게 응하는 데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활용법입니다.

'주인공' 공부와 '이렇고' 차이점

문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안 산 속에서 고행을 하신 줄로 알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따로 스승이 없었는데 불현듯 의정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스님께서 공부하신 방법과 저희가 참선공부에서 많이 듣는 방법, 앉으나 누우나 항상 '이렇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김일두>

답 내가 산으로 다닐 때는 따로 공부할 틈이 안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무엇이 되겠다는니 깨우치겠다는니 하는 생각도 해보질 않았습다. 다만 내 주장 하나 쥐고 그걸 스승삼아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을 뿐 아랑곳하지 않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불속 의정이 나면 그것이 풀릴 때까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게 공부였는지...

어느 날 밭길을 가다가 밭담 앞에 이르러 봤어요. 하룻밤 보낼 요량으로 옆으로 풀대 들어갔는데 거기에 삼밭을 모셔놓은 걸 보자 '왜 삼밭을 모셔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의정이 나는 거였지요.

그런데 해답이 딱 떨어져 나와야 말이지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새웠지요.

그러다가 '아하, 저분들은 모두 삼촌들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이 부처도 나오고 저 부처도 나오니 다 삼촌이지 뭐가 한거지요.

오른 팔 왼팔이 다 한 물에 붙어 있듯이 '그래 마음내고 움직이는게 다 보이면 이고 문수지 뭐겠느냐'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럼 칠성각은 뭐고 삼신각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 앞에서 땡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도무지 아무 말도 들어본 일조차 없었으니 어렵니까? 또 꼼짝하지 못할 바예요. 그러다가 '그래, 그게 감사고 관사지 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마음 자리에선 감사도 생기고 관사도 생기지 뭐 때로이겠느냐 하고요.

내가 내 생각을 해보아도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참 당돌했어. 죽는다는 걸 겁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편리한 공부지요, 이 공부

가. 안그러가요?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애비도 되고 아들도 되고 어른이 되었다가 아이도 되고, 저 소도 되고 말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는 게 있었어도

18면으로 계속

생활 속의 불교 (142)

씨앗이 약하면 열매가 적다

“흔히들 한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한생각 던져 놓으면 언젠가는 되돌아 나오게 된다.

또한 아주 집착없이 한생각 일으키면 온 우주의 마음이 함께 한다.

마음은 자력 · 광력 · 전기력 · 통신력을 다 갖추고 있다. 무한의 능력을 가졌기에 자력으로 끌어 당기기도 하고 통신력으로 주고 받으며 자재로이 통할 수도 있다. 고로 나를 내세움이 없는 가운데 아주 역력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근본에서 빛보다 더 빠른 에너지가 나와서 법계에 두루 통할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산다. 뿌리가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 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잎새도 가지도 자랄 수 없다. 꽃을 피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고로 뿌리는 생명의 원천, 성장과 활동의 근본적인 기반이 된다.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무엇이 그 뿌리에 해당하는가. 비록 정체를 확연히 알지 못한다해도 무언가 생명의 근원은 있

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몸하여 불성, 진여 또는 한마음이라고 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영원불변의 생명력을 뿌리로 하여 모습을 이루고 활동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력은 우주 존재의 근본이자 나의 뿌리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력은 다만 힘의 원천이 되어 줄 뿐 경계에 관여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잎새와 가지에 공급해 줄 뿐 그 이상의 다른 작용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존재의 뿌리를 흔히 저 바퀴의 축, 심봉과 같다고 말한다. 심봉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의 원천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소와 물이꾼과 달구지로 비유할 수 있다. 달구지는 육신이고 물이꾼은 마음이며 소는 생명력의 원천(불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물이꾼인 마음은 소와 달구지를 연결해서 제 기능을 발휘케 하는 중재자가 되는 셈이다.

달구지를 움직이게 하려면 물이꾼이 고



베를 잡고 소를 몰아야 한다. 이때에 물이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구지에 짐을 더 실거나 덜 실을수도 있고, 소를 빨리 가게하거나 천천히 가게할 수도 있다. 소는 물이꾼이 마음먹은 대로 거기에 맞춰 힘을 써줄 뿐 먼길이든 가까운 길이든, 짐을 잔뜩 싣든 반만 싣든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달구지가 움직이는 상태는 물이꾼의 한생각에 달려 있다.

마음은 이 물이꾼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내 육신 살림살이와 영원한 생명의 원천(존재의 근본·나의 뿌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무한량의 힘을 이끌어 쓸 수도 있고 조금만 취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법은 묘법인 것이다.

자신의 살림살이는 전적으로 물이꾼의 한생각 차이에 좌우된다. 한생각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일의 성취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 행복과 불행, 질병이나 고통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내 뿌리의 무한

한 힘을 어느만큼 확고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편이하게 달라진다. 믿음이 강하면 끌어쓰는 힘이 강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행동, 나의 육신, 나의 삶은 강하고 밝고 건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혹은 믿음이 그 자체가 없다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힘이 약해져 나의 삶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한생각의 힘이 가장 강해질려면 첫째는 믿음이지만 필수적으로 순수한 공정이 뒤따라야 한다. 욕심, 이기심에 근거한 집념은 비록 힘이 있는 경우라도 주위에 나쁜 영향을 주게되고 그것은 반드시 나를 치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다.

고로 그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공적인 삶, 건강한 삶에 역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생각, 나의 이기적인 계산이 배제된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힘 있는 한생각이 된다. 법계가 들켜서리는 한생각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마음의 씨앗에는 많은 열매가 있다.

협찬: 김정혁